

신행수기 당선작 (현대불교 사장상)

나를 일깨워 주신 부처님

원만심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몇 해전의 일이다. 나는 병고로 몇 년간 고통을 받았다. 찾아 다닐만한 병원과 병을 고쳐 준다는 곳은 다 찾아 다녔으며 그 사이 졸다는 약 또한 아무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접해 보았다. 그러나 신경과민과 만성위염이라는 병이 있는 나를 고쳐 줄 의사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심해지고 신경은 더 날카롭게 변해 음식조차 거부하

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집에서 가까운 불교사를 기도처로 정하고 새벽 3시30분에서 4시 사이에 절로 향했다. 그러면서 좌절도 하고 또 일어선고 마음 속으로라도 백일을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 하고 싶다.

17년 전 일이다. 막내아들이 다섯 살 때였는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그때 당시 아들은 삼륜차 밑에 깔리게 되었는데 목격자가 나에게 연락을 했



그림 · 문병성

도 못 나왔다. 나도 무언가 도와야겠다는 마음에 봉사하는 것도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 인연있는 보살들에게 전화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좋은 인연 속에 공덕을 짓고 봉사하지 않겠느냐고... 부처님 사상은 지비보시라 하였는데 실천으로 옮기자고 하였다니 보살들이 속속 모이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때 살아 숨쉬는 불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든치장이나 하는 사치스러운 모임이 아닌 동체대비 보살심으로 슬선수범하여 나선 그때를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내 건강도 완쾌되기 시작했다.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는 가족들이 봉사를 받아야 할 입장이라며 반대를 했었다. 우리는 봉사 마지막날 현장에서 승려간 영혼들을 위해 공양물을 준비하여 5백여명이 영가 천도재를 지내게 됐는데 나의 백일기도 역시 이곳에서 화양하게 되었다. 우리 봉사자들은 어디를 가

“건강만 하다면 무슨 일이든...” ‘삼풍’ 붕괴현장서 백일기도 회향

는 상태에 이르렀다. 병원에 입원도 해 보고 응급실에 실려 간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불심이 돈독하신 어머니는 애원하다시피 나에게 부처님을 찾아가서 기도한 번이라도 해 보라고 하셨다. 하지만 금방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다.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섭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머니 말씀대로 절에 가서 기도나 해 보고 죽자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매달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건강하기만 하다면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하고 기도했다. 그러나 그때는 물론 조차 소화를 못시킬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있던 때였다. 그래도 백일기도

다. 성모병원 응급실에 빨리 가보라는 것이었다.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해주지 않고 무조건 가보라는 말 뿐이었다.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른채 병원 응급실로 갔다. 아마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내가 놀랄까봐 그랬던 것 같다.

옆에서 본 사람들은 아이가 허리로 부러지고 뇌도 다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했다. 정신없이 도착한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정말 이상한 아이라면서 보호자 되느냐고 물었다. 얼마라고 대답했더니 간호사는 “관세음보살님이 뭐예요?” 하고 물었다. 아이가 관세음보살님을 계속 중얼거려머리는 것이다. 할머니가 매일같이 관세음보살

님을 염불해서 다마도 은연 중에 배웠던 것 같다고 말해줬다. 그때만 해도 나에게 불심이 없었거니와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보살님이라는 것조차 전혀 몰랐기에 대답을 해주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심하게 다친 것 같았던 아이는 비자의 무릎부분이 찢기고 피가 나는 상태였을 뿐이었다. 아이를 겨우 달래서 뇌혈액 및 모든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아무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때까지도 사고 운전사는 마음을 졸였던 모양이다. 경찰에 신고도 안했지만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으니 가해자 입장에서 무척 걱정을 했을 것이다. 가해자 측은 치료비도 못 낼 정도여서 내가 치료비를 내고 우리가 걱정을 꺼쳐 도리어 미안하다고 했더니 사고 운전사 부인이 나를 붙잡고 감사하며며 눈물을 흘린 기억이 난다. 철없이 뛰어다니며 놀기만 좋아하던 어린 아들이 지나치면서도 할머니의 염불소리를 기억했다는 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 사고는 관세음보살님을 주불로 기도해 보겠다는 발심을 하고 백일기도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었던 것이다.

아 큰 몸을 이끌고 백일기도를 끝내도 큰 차도는 없었지만 마음에 의지하는 생겼다. 나의 기도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아마 나처럼 부처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중 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지만 나는 관세음보살님을 잊지 않고 정근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었다. 병원에 누워 있을 때에 법당에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자 아직 법당에서 죽은 사람은 없었는지 하는 마음으로 법당을 찾게 되었다. 덕분에 많은 보살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즈음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나는 사고 직전 30분 전에 그곳을 다녀왔다. 그 합사의 현장을 피

“고통받고 외로운 이들에게엔 말 한마디도 보시임을 알았다”

할 수 있어 나는 부처님과 인연으로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무고한 희생자를 냈다는 것에 울분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난 그래도 운명을 피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백일기도 중이었는데 나는 집에 나갈 수가 없었다. 현장에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섰다.

그때 당시 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던 119구조대원들의 모습은 관세음보살님으로 보였다. 내 목숨 버리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겠다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현장을 본 나는 비켜설 수가 없었다. 마음이 우울해 법당에

든 부처님 생각을 하며 살자고 다짐하고 아무런 기억없이 아쉬운만 남긴채서로 헤어졌다.

나는 건강이 완쾌되면서 봉사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고통받은 이들에게 기쁨을, 외로운 이들에게는 다정한 말 한 마디가 큰 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봉사자들에게 다시 만나 봉사를 하자고 했더니 모두들 기뻐했다는 뜻이 또 만나기 시작하여 지금 현재 '심우회'라는 봉사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나는 장소는 거리를 법당으로 또는 비닐하우스를 법당으로 삼아 법회를 갖고 큰 법당에서 만나는 기쁨보다 더 신심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계속)

HOME 홈TV인터넷(주) http://www.home.co.kr
서울시 성동구 미장동 791-6 상경빌딩 3층
전화 02)2295-6660 / 02)2295-6669



“불교 정보화의 새로운 출발”

TV인터넷의 사찰 전산화

- 기존TV에 단말기 연결
- 컴퓨터를 몰라도 간단한 리모콘 동작으로 인터넷 가능
- 불교계 뉴스를 현재시간으로 확인
- 국내외 인터넷 정보 사용 및 불교정보 검색 가능
- 사찰에서 TV를 통한 인터넷 접속 및 전자우편 확인
- TV 인터넷을 통한 설법 듣기 가능
- 신명상담/불법공부/신도와의 대화가능
- 뉴스,홍소령,경제,문화등의 다방면의 실용 정보 제공
- 화면 칼라 프린팅 지원
- 불교신자들 간의 대화 공간 제공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TV인터넷의 강력한 기능

- 비디오와 같은 손쉬운 연결
- 전화선을 이용한 PC통신보다 20배 이상 빠른 고속 인터넷 접속
- 마우스가 내장된 무선키보드를 기본 제공하여 사용의 편리성
- 인터넷만을 이용한 운영체제(OS)자동 업그레이드
- 지루한 부팅 시간없이 5초내 단시간 인터넷 접속
- 고장의 염려없이 뛰어난 안전성
- 기존의 TV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성 및 뛰어난 공간활용성

전국지사 및 대리점 모집합니다

세계최초!! 위성인터넷 실시

- 홈 TV 인터넷이 불교계에서는 세계최초로 전국 사찰에 무궁화 위성용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TV 인터넷은 위성 인터넷을 이용 최선의 불교정보를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 서비스 지역의 제한이 없습니다.
- 최고 3Mbps의 초고속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불교 정보화를 위해서 홈 TV인터넷이 제공합니다.
- 희망하시는 사찰이나 신도분들에게 위성수신 인터넷을 아주 저렴한 비용에 임대해 드립니다.



◎ HOME TV INTERNET 구성 : 기존 TV + 수신기 + 무선키보드,마우스 (수신기 가격 : 395,000원, 부가세 별도)
◎ 인터넷망 : 케이블 TV, ADSL, ISDN, LAN, 전화선

· 사찰정보화 협력업체
(주)현대불교신문사 : 02)737-8881(대표)
부다케아 직통 : 02)732-1520

TV인터넷 협력기관 현대불교신문사, 중앙일보, 한국통신, 하나통신, 숭실미디어, (주)영웅, 제노시스, IBKorea, IBCanada, 서울은행, 한국축보신문사, Kweather, Webkiosk, 교회사, 우리교육사, 오토메트, 한국인터넷TV금융정보, 미루시스 유한C&T, 한국디지털포럼, 코리아인터넷, 워너비실리콘, 시티넷, 조이스타일업, 다우시스템, 고나아 정보통신, ICN인텔빌, 밀티스쿨&넷, 힐강유아, 테크월드, 마이크로비전, 에이디시스템, 월드크레프트, 체우시스템, 하나엔지니어링, 정일엔지니어링, 태흥정일, Z-ram, 사주도시, 한솔디자인, 성진초등학교, 한국기독교인터넷방송, 인터넷 매직 프리저, FIX 프로덕션, Kitel, 서울대논문연구회, 뉴스클러워, 인터넷의료정보